

“새해엔 조계종단 개혁”다짐

소장·중진승려단체들 ‘신년활동’ 밝혀

대중집회·종단발전연구소 설립등 계획

조계종의 재야 소장·중진 승려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종단개혁을 위한 2천 승려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 스님)는 11일 서울 견지동 산중다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교체하는 시기를 맞아 종단을 시대에 맞게 개조하자”면서 “1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개혁안이 좌초되면,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승가회는 또 “최악의 경우 승려대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립 동국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종단의 전문가집단을 자임하는 석림동문회(의장 혜총 스님)도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가져 “불교는 과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종무행정 개혁의 주체로 나서자”며 “이를 위해 2월중 종단발전연구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천승가회와 석림동문회를 비롯해, 승풍진작을 주창하는 수행결사인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 스님), 전국 사찰의 강원학승연합체인 전승련(회장 희문 스님),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금강 스님), 동국대 석림회(회장 법상 스님) 등 재야의 6개 승가단체 대표 22명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송현클럽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단은 올해 8월 서의현 현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7월을 전후해 간접선거를 치른다.